

지원본부 | 공단의 튼튼한 견인차!

이번호 탐방의 주인공은 우리 공단의 튼튼한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지원본부'다. 문남주 본부장을 비롯해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원본부는 총무회계팀(팀장 최병춘), 인력개발팀(팀장 최현미), 정보화팀(팀장 이재역)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총무회계팀



총무회계팀은 우리공단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팀으로서 회계·서무·용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병춘 팀장을 비롯한 10명이 "The Hub of KST!"라는 팀 목표를 가지고 화합을 통한 新 조직문화 창조에 앞장서는 팀이다.

총무회계팀은 대외적으로는 사회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공단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내부고객만족도 개선을 통하여 각 팀·지부 업무추진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전자금융

체계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앞으로도 총무회계팀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투명·윤리경영실천 및 체계적인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해 공단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원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인력개발팀



인력개발팀은 공단 최초의 여성팀장(최현미)을 필두로 젊은 팀원 5명이 인사, 노무, 복무, 복지 및 교육훈련 등 공단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관리(Management)하고 개발(Development)하는 팀이다.

인력개발팀은 공단을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승진 시 '경력평정 폐지' 및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조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난 몇 년간부터 지속적으로 공단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집중하여 왔다.

앞으로도 인력개발팀은 그 간 이룩한 인사혁신을 밑거름으로 역량평가와 교육훈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완성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수립을 통한 상생의 경영으로 조직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정보화팀



정보화팀은 공단의 중·장기 업무전산화 계획 수립 및 개발과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 S/W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팀은 공단에서 가장 젊은 팀장과 팀원들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 구성원간의 신뢰를 쌓고 개개인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팀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팀은 최근 선박안전정보시스템 등의 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생산성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항상 다른 팀·지부를 support 하는 지원본부 입장에서 내부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숨은 일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팀이다.



▲문남주 본부장

문남주 본부장은 우리공단의 내부고객인 팀·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부서로서의 그 동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팀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이사장 경영방침의 일환인 투명·윤리경영실천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 등 공단의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선임팀으로서 최일선에서 고생한 총무회계팀!”,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개선은 물론 노사담당팀으로서 19년 연속 무분규를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확립 정착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한 인력개발팀!”, “선박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종 시스템 구축 등 공단의 정보화에 매진하고 있는 정보화팀!”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내외적으로 강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eople Inside

인력개발팀 이상엽 과장



이상엽 과장은 공단 입사 7년차로서 정보화팀, 혁신팀을 거쳐 작년 5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였음에도, 사회생활의 시작은 웹 프로그래머로 출발한 조금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혁신팀에 근무할 때부터 조직·인사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과장은 “인사업무(HRMD)가 단순히 조직운영의 지원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회계팀 황현숙 주임

입사 14년차인 황현숙 주임은 감사실, 총무회계팀, 혁신팀을 거쳐 현재 총무회계팀의 회계 파트에서 근면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중이다.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신조 아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 송이의 난초가 공간을 향기롭게 하듯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일을 씩 없이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간 다며, 앞으로 회계파트 업무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